朴대통령-시진핑 27일 베이징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北 6자회담 복귀 방점… 한·중 FTA도 화두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며 27일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박 대통령은 28일에는 중국의 새 지도부와 연쇄 회동을 하고 양국관계 발전방안과 상호관심사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방중 기간 베이징 외에 지방 도시 1곳을 더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달 미국 방문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정상외교 무대가 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특히 박 대통령의 방중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후 심화됐던 한반도 위기상황이 남북 간 장관급 회담개최 추진 속에 한풀 꺾이며 급속히 해빙무드를 타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두 정상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는 한편, 북한의 핵시설 가동중지와 동결 등 기존 북핵 6자회담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북한의 대화복귀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방중기간 수행 경제인과의 조찬간담회를 비롯해 대학 연설,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시찰, 한중 경제인 오찬, 재중 한국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김 대변인은 "경제분야에 있어 양국 간 장기적이고 호혜적 경제관계를 구축한다는 미래, 상생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포함한 상호 교역투자의 확대방안과 ICT 등 과학기술, 환경과 금융, 에너지 분야 등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8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의 휴양지 서니랜즈에서 함께 거닐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北 핵보유국 불인정·핵무기 개발 불용"

오바마-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공동노력 합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7~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랜초미라지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8일 공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도닐런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밝혔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 문제가 중국과 미국이 공동협력을 해나가는 핵심분야라는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도닐런 보좌관은 "양국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해야 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준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quite a bit of alignment)'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이견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의 질서를 주도하는 두 강대국이 이런 원칙에 다시 합의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 핵무기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른바 '5세대 10년'의 중국을 이끌 시 주석이 북한 문제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향후 북·중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또 조만간 열릴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신안 해상에 세계 첫 태양광발전 시범단지

전남도-한국남동발전
하의~신의 해역 50㎾급

신안군 하의·신의면 사이 해역에 세계 첫 해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3억3000만원을 투입해 신안군 하의면과 신의면 사이 해상에 50㎾급 태양광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하의도~상태도, 전도~과부도, 과부도~상태도 등 이 일대 해상에 모두 5000억원 투입해 발전용량 100㎿급 태양광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해상 태양광 시설이 순조롭게 건설되면 연간 발전량 12만7700㎿h, 3만6000가구가 동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한국남동발전 등과 지난해 8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절감 방안, 양식어민과의 이해관계 절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행업체는 다음달까지 공유수면 사용허가 신청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간다.

한편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7일 실무 당·정·청 협의를 갖고 전력난 해소 대책으로 민간보유 발전기를 총동원하고 태양광 발전소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건설하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우치공원 재공모 또 잡음

2곳 응찰… 직원들 협동조합 구성 '고용승계' 요구 반발

호남유일의 놀이공원인 광주 우치공원(패밀리랜드)의 관리위탁 운영자 재공모에 2곳(업체 1, 개인 1)이 응찰한 가운데 우치공원 직원들이 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상운영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우치공원 놀이기구의 관리위탁 운영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S개발과 개인 이모씨가 응찰해 S개발이 가선정됐다.

S개발과 이씨는 광주시가 제시한 예정가 4억5300만원(1년 위탁료)보다 높은 금액으로 응찰했으며, S개발이 이씨보다 많은 금액을 제시했다.

현 우치공원 운영업체인 (주)금호리조트는 이번 1, 2차공모를 앞두고 각종 특혜설 등이 거론된 데 부담을 느껴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S개발은 지난달 1차 공모에서 유일하게 응찰했던 업체로, 당시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이 응찰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무산됐다. 이번 재공모에서는 S개발외에 이모씨가 추가로 응찰함에 따라 유효입찰 조건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현 운영업체인 금호의 포기로, 우치공원 직원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어 우치공원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중 정규직 47명은 지난 5일 광주시에 협동조합을 직접 만들어 위탁비용을 내고 운영하겠다는 뜻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금호측이 소유한 일부 놀이시설의 이용권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치공원의 한 직원은 "많게는 수십 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광주시에 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최종적으로 고용승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입찰 참여업체에 대한 자격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10일까지 위탁업체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며, 선정업체는 다음달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강시장, 금융위에 상품거래소 광주설립 건의

광주은행 분리매각도

강운태 광주시장이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상품거래소 광주 설립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지난 7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만나 상품거래소 설립 문제를 금융위에서 취급하기로 확정한 사실을 들며 상품거래소 설치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특히 올해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인 일반상품거래법(안)에 상품거래소 본점을 광주로 명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광주은행에 대해서도 분리매각을 통해 향토은행으로 환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최고가 낙찰제로 매각을 추진하면 지역 자본이 광주은행을 회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 자본에 환원한다는 대원칙하에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강 시장의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북부순환도로 1공구 우회도로 개설 추진

광주시는 "한새봉을 관통하는 북부순환도로 1공구 공사를 우회도로 개설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광주시는 그동안 북구 일곡 교차로에서 용두동까지 3.2㎞ 구간 가운데 한새봉(495m)과 일곡(150m)구간을 터널로 연결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해당 지역민들이 숲 훼손과 생물서식처 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해 마찰을 빚어왔다. 시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해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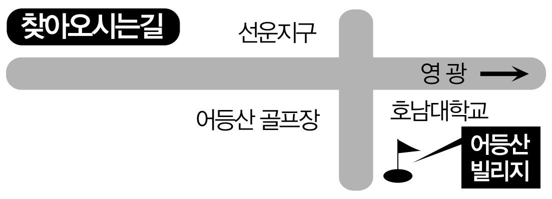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 · 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 입니다.
2. 각 필지별 상 · 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급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호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3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8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급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첨단 중심상권 2층건물 매매 18억(보1.5억 월 910만 수익)
▷월산동 일반상업지역 6층건물 매 14.7억
▷동천동 공장·창고 임대(대1300㎡, 건400㎡)
보2천 월3백만

대지/전답
▷담양군 금성면 토지 5,500㎡(1,670평) 개발허가,기반시설 완비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신창동 창고용지(생산녹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수완지구 원룸부지 323㎡(98평)

수익형 구분점포
▷첨단 메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첨단 중심대로변 복층 가능 1, 2층 점포 400㎡, 710㎡ 임대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10억 월 1,200만
▷첨단 메인상권 1층 구분상가 370㎡ 매매 35억(임대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73-0045 010-5536-0382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료시설 대지1026㎡ 건평2890㎡ 감정가29억 최저가20억
▷광산구 쌍암동 상업지역 3층근린시설 대지3238㎡ 건평3090㎡ 감정가72억 최저가20억
▷서구 쌍촌동 2종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평198㎡ 감정가5억5천만 최저가3억8천만
▷영광읍 녹사리 7층근린시설 대지5111㎡ 건평3290㎡ 감정가25억 최저가17억

단독주택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억3천만 최저가2억4천만
▷동구 산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평70㎡ 감정가2억 최저가1억4천만

공장및창고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5억
▷강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1억

토지매매
▷화순읍 연양리 자연녹지 답1121㎡ 감정가4,600만 최저가3,200만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동구 내남동 1종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